



林業의 專門性에 대한 意識 전환이 쉽다

변 수 현 / 경상북도 영림과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일련의 경제 개발 계획은 '70년대에 들어와 짧은 기간동안에 국가의 총량적 경제발전을 가속화시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와 산업의 양적발전뿐만 아니라 질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수립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국민들도 그동안 우리가 성취한 물질적풍요와 경제적여유를 바탕으로하여 삶의 질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들은 공해문제 제기와 더불어 자연환경보존, 도시환경의 정비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에 따라 인간의 자연환경 추구의 욕구가 점차 다양화, 가속화되므로써 도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심미적 욕구도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기대하는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 환경의 질을 추구하는 욕구는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에게 쾌적감을 제공해주는 녹지의 감소가 진행된다면 국민대다수의 자연환경으로 귀속욕구, 즉 생활속에서 푸르름을 맛보기 위한 녹색지향의 동경욕구가 더욱 강렬해진다. 이제까지 이룩한 물질적 풍요를 근간으로 마음의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녹지환경이 요청되며 꽃과 푸르름이, 충만

한 생활환경에서 그동안 도외시했던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룩하고 이로인해 인간과 인간의 융화도 이룩할 수 있다. 인간미 넘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어 보호할 줄 알아야한다. 우리는 목심에서 애국심을 찾아야 한다. 잘 알다시피 산림은 우리들에게 목재등 임산물을 직접 생산할 뿐만 아니라 환경임업적인 측면·풍치적인 측면, 야생동물의 서식처제공, 수원함양, 그리고 맑은 산소공급과 더불어 대기정화 등의 다양한 공익적기능 측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간과 수목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목의 은혜는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더 실감나게 된다. 오늘날의 과학에서는 인간생존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질것이 확실시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면적 약650만 ha를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1987년도를 기준시점으로 한 산림공익기능의 평가총액은 17조6,56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1987년 기준 임업총생산 6,920억원의 25.5배 그리고 동년 국민총생산 97조5,317억원의 18%에 상당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을 살펴보면 다음 도표 1과 같다.

도표 1)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

단위 : 10억원

기능별	평가액
총액 (A)	17,656
임업총생산 (B)	692
(A/B) : 배	25.5
G. N. P (C)	97,531
(A/C) : %	18.1
수원함양기능	30.40
토사유출방지기능	3,473
토사붕괴방지기능	308
보건휴양기능	5,997
야생조수보호기능	259
산소공급기능	4,579

자료제공 : 산림청 임업연구원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산림의 중요성 특히 공익적 기능이 날로 증대되어 감에 따라 산림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산림 업무를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산림관계업무를 행정직이 맡아서 하면 안된다는 절대 논리는 결코 아니다. 다만 행정직은 임업직에 비해서 산림분야에 비 전문성이기 때문에 소위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므로 기술부서의 장은 가급적이면 기술직종이 맡아야 하는 당위성의 본리가 성립하게 된다. 기술부서의 장은 왜 기술직으로 보해야만 하는가? 라는 전제아래 구체적으로 몇가지 사실을 제시코자 한다.

1) 산림관계업무는 쉽기 때문에 누구나가 맡아도 해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

행정직은 산림업무수행에 있어서 기술적, 산술적, 법규적인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모르기 때문에 사실 산림

관계업무는 누구라도 손쉽게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시각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 (심지어 너희들이 뭐 기술적이냐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영림과 부서의 장을 행정직 또는 임업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나 계속 행정직이 맡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2) 임업에 대한 기초지식결여로 업무수행에 있어 비능률적이다.

산림관계 일반업무 및 임업용어자체에 대한 기초지식내지는 전문성 결여로 이해도가 비교적 낮아 어떤 사안을 설명하는데 오랜 시간소요와 더불어 결정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낭비되어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또한 시행착오를 가져오기 쉽다는 점을 들수 있다.

3) 어려운 업무에는 비교적 접근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속성은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에 접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산림관계업무에 있어서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업무인 국공유림관리업무(관련법규 약 70여개), 사방사업(공학적 설계요구) 영림계획업무 등에 대하여는 쉽게 잘 접근하지 못하는 성향이 강해 업무수행에 있어 어느한쪽으로 편중되기 쉬운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4) 산림관계 업무전반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임업의 올바른 방향설정 내지는 창의적인 지시를 내리기가 어렵다.

직종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쉬워 평소 업무연계가 잘 안되어 임업의 새로운 방향설정내지는 창의적인 지시를 잘 내릴 수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임업연수원에 직무교육을 가서 임업직교관들과 행정직 교



관의 산림관계 강의를 들어보노라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임업직 교관들의 강의는 행정실무(이론)에다 현장감 넘치는 실무 감각이 뒷받침되어 일선에서 느끼는 바를 생동감 있게 설명하여 가슴에 무언가와 닿는게 있는 반면 행정직 교관들의 강의는 교재내용에 나오는 이론강의로 우리들의 마음을 피곤하게 함을 느낄 수 있다.

5) 행정은 어디까지나 기술의 뒷받침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기술직이 벌여 놓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뒷받침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 행정이 우위라는 우월감을 갖고 있어 오히려 기술보다 앞서가는 경향이 강하다. 사실 행정부서의 직급별 편제를 보면 각계별로 5급 밑에 6, 7, 8급의 계층제로 되어 있으나 유독 1차 산업분야인 농·임·축산 그리고 수산 직부서에는 6급 밑에 7급이 없이 바로 8급만 있는 계가 일부 있다. 그러므로 각부서간의 직급형평문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6) 산림기구 축소 및 행정직과의 심한 계급 격차로 사기저하는 물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야면적이 전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윗분들께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산림국폐지와 더불어 과(양묘과) 폐지로 인하여 임업직에 평생 종사해도 상위직에 이르기 어렵다. 같이 출발한 행정직 동료들과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생겨 사기저하와 더불어 심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위직으로 갈수록 직렬통합과 아울러 동일업무분야내에

서는 인사전보의 융통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기술직이 진출할 수 있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그러한 경로에 따라서만 운영할 경우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적체와 더불어 사기저하, 전문성을 가진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은 자기의 고유업무분야를 그대로 개발해 나가면서 일반행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타분야직종으로도 전보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7) 치산녹화계획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하는 임업직 공무원의 절대적인 피와 땀과 노력의 결과다.

산림청에서 적극 추진한 치산녹화년차별 계획에 의거 임업공무원은 불철주야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해온 결과 과거 험벗은 산이 이제는 몰라보게 푸르게 되었다. 이는 홍수때 강물의 빛깔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시대적요청과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 우리의 영역을 확보하여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행정직종을 삭제하고 당연히 임업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8) 임업직은 계속같은 직종에 오래근무하기 때문에 각종정보수집이 용이하다. 사실 임업직은 일선시군의 동태를 잘 알수 있는 반면에 행정직은 소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는것 같다. 이런 관계로 인사이동후 계층간의 불신 조장은 물론 임업공무원상호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원인을 가져오기 쉽다.

9) 행정직공무원의 업무수행형태를 잘 살펴보면 어떤일에 있어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시하는 성향이 있다.

행정직공무원은 투입(Input) 과 산출(O-
(13페이지에 계속)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산주가 못할 일이란 말인가. 산주들이 못하는것은 계획을 못세우는 것이 아니고 산주들이 할수 없도록 학술 용어만 나열하여 실효성도 없는 복잡한 서식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영림 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만이 영림계획을 작성할수 있도록 한것은 사실상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회로 하여금 영림계획 작성을 전담토록 법제화 한것이나 다름없다. 사유림 경영을 산림조합에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계획만 작성하면 임업이 발전하고 경영이 된단 말인가. 영림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산주의 영림 의욕이다. 산주가 산림경영 의욕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작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좋은 종이에 인쇄하여 보기 좋게 철해서 케비넬에 비치해 두면 영림계획인가.

<16페이지에서 계속>

ut put)이라는 순환과정 (Feed Back) 을 통한 업무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때 산림관계 업무의 외적요인을 무시하고 내적요인을 더 중요시 하므로써 일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하는 성향이 강하다. 사실 어떤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보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때 까지의 과정을 더 중요시하여 처리함이 보다더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10) 오늘날 기술중심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기술부서의 장은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으로 보해야함은 필연적 사실이다.

시대적 변천에 따라 행정직종의 부서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1차산업인 농·림·수산 및 축산분야의 부서는 갈수록 축소지향적이다. 그러므로 임업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기술부서의 장은 기술

영림계획 제도가 실시된지 근 30년이 되었다. 국가의 어떤 제도가 30년이 가깝도록 국민에게 정착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어딘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산주들이 산림경영 의욕이 없는것은 산림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나라 임업 발전은 70%가 넘는 사유림의 발전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고 사유림의 발전은 산주들의 수준에 맞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산주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집행도 할수 있도록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하여 산림 경영에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 만이 이나라 임업 발전의 기초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

직으로 반드시 보해야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상의 원활은 물론 불합리한 점은 점진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기술 중심주의 시대에 있어서 오히려 행정은 기술을 후면에서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일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와 직관을 통해서 신념에 찬 행동으로 바르게 행하려는 의지가 있을때만이 모든것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더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임업직공무원 개개인의 뼈를 깎는 깊은 반성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피눈물나는 노력이 뒷따를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영역을 확보하는데 하나의 첩경이 되리라 굳게 확신하는 바이다.